



1999년도 시멘트 수급동향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부 대리)

1. '99년 국내 경제동향

외환위기 이후 침체가 심화되던 국내경제는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최근까지 급속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금년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재고투자 감소세도 진정됨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98년말)의 2%대에서 8%('99년 9월)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최근('99년말)에는 9%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폭 상승하였다.

작년 우리경제가 -5.8%의 후퇴를 보인 것에 비하면 금년들어 성장으로의 반전은 상당히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39억불이었던 외환보유고가 최근에는 사상최고인 680억불에 달하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추가적인 등급조정을 검토중에 있다.

금년들어 공공부문 소비가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8.3%로 크게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 최종소비지출은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내수가 확대되면서 건설투자가 -6.4%에 그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29.8% 늘어날 것으로 보여 총고정자본 형성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무역수지는 2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7.8%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에는 1.1% 상승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며, 실업률은 전년의 6.8%와 비슷한 수준인 6.7% 정도로, 고용창출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년동안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였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기업의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고용기회의 확대와 함께 경기후퇴 방지를 위한 예방적·대응적 조치를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99년 국내 건설동향

IMF 관리체제가 시작된지도 어언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냉랭함 그 자체라고 하겠다.

'99년도에 들어서면서 타산업의 회복세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공공단체 등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공공부문 계약액은 21조 7,890억원에 그쳐 전년대비 26.2%의 감소가 예상된다.

민간부문은 정부의 건설관련 규제완화 조치와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재개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공업용 건축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5.6% 증가한 24조 9,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과 공공을 합쳐 46조 7,34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2.4% 감소하고 IMF 이전인 '97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37.6% 감소라는 부진의 터널속에 있다고 하겠다.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허가면적이 4월 들어서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국면으로 바뀌었다. (〈표-1〉)

금년의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56.4%, 2월 -50.5%, 3월 -29.6%의 감소이후 4월 4.1%, 5월 47.1%, 6월 16.8%, 7월 49.0%, 8월

109.3%, 9월의 81.7%에 이어 10월은 전년동월대비 277.7%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여 1~10월 누계치로도 전년동기대비 17.7%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IMF 기간인 '98년과 비교한 것일 뿐 '97년 1~10월의 건축허가 면적과 비교할 경우에는 45.5% 감소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이 정부의 수요 유발정책과 금리안정,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까지 각각 11.5%, 14.1% 늘어났으며 공업용은 설비투자를 미루어왔던 기업들의 경기회복세에 맞춰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 전년동기대비 161.3%의 큰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문교사회용 및 기타 건축허가면적은 정부의 조기발주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학교시설, 관공서 등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를 보였다.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 동향에 따르면 '99년 10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총수주액은 27조 3,7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

〈표-1〉 1999년 건축허가 실적

(단위 : 천㎡, %)

구 분		건 축 허 가 실 적 (1~10월)			
		1997년	1998년	1999년	1998년 대비
용 도 별	주 거 용	48,054	24,816	27,660	111.5
	상 업 용	22,828	7,678	8,761	114.1
	공 업 용	7,759	2,285	5,971	261.3
	문 교 사 회	5,422	3,402	3,658	107.5
	기 타	5,731	3,369	2,871	85.2
구 조 별	철 골 조	81,964	38,123	43,876	115.1
	조 적 조	4,443	1,623	1,977	121.8
	목 조	146	97	106	109.3
	기 타	3,241	1,707	2,962	173.5
계		89,794	41,550	48,921	117.7

※ 주 : 건설교통부.



〈표-2〉 1999년 건설수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건축수주 실적 (1~10월)			
		1997년	1998년	1999년	1998년 대비
발주자별	공공	181,710	161,272	101,587	63.0
	민간	312,319	112,683	165,927	147.3
	제조업	49,669	11,429	14,209	124.3
	비제조업	262,650	101,253	151,718	149.8
	국내외국기관	707	982	1,187	120.9
공사종류별	건축	293,383	126,129	177,495	140.7
	주택	168,298	82,802	137,246	165.8
	비주택	125,085	43,327	40,249	92.9
	토목	198,766	156,205	97,738	62.6
	전문공사	2,587	822	1,471	179.0
계		278,389	283,156	273,739	96.7

※ 자료 : 건설교통부장관 면허업체 중 기성실적 상위 292개 업체 실적.

※ 주 : 통계청.

% 감소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이 10조 1,587억원으로 전년대비 37.0% 감소한데 비해 민간부문은 16조 5,927억원으로 전년대비 47.3%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가 9조 7,738억원으로 전년대비 37.4% 감소하였고 건축공사가 17조 7,495억원으로 전년대비 40.7% 증가하여 전년에 나타났던 공공·토목 강세, 민간·건축 약세가 예년의 민간·건축 강세, 공공·토목 약세의 구도로 반전되어 금년의 어려운 건설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2〉)

건설수주 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면적의 추이와 마찬가지로 1/4분기까지는 전년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다가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말까지는 전년수준을 약간 상회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수

시멘트는 건설의 기초자재로서 건설경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증감을 보이며 변화하는 양태를 보인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한 IMF의 한파로 얼어붙은 건설경기는 IMF가 시작된지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빙기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시멘트 수요 또한 어려움속에서 1/4분기까지는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지표들과 움직임을 같이 하며 2/4분기부터 서서히 증가를 보였으나 11월까지의 실적은 전년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치고 '97년의 동기간과 비교할 경우에는 27.8% 감소한 부진을 보였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 17.2% 감소하고 2/4분기에는 7.3% 증가하였으나 3/4분기중 다시 4.0% 감소를 보였다. 4/4분기에는 13.2%의 증가가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멘트 내수가 최대실적을 보인 '97년보다 27% 감소한 수준으로 건설경기 부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표-3>)

한편 11월까지의 업체별 출하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동양 -3.9%, 쌍용 -1.5%, 한일 -3.3%, 현대 -3.2%, 아세아 -1.4%, 성신 9.4%, RH -3.6%, 고려 18.8%, 한국 31.6%, 대한 26.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가 3%대의 감소를 보인 반면 고려, 한국, 대한은 두자리 수의 증가를 보이는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고려, 한국, 대한이 모두 슬래그시멘트를 위주로 생산, 출하하는 업체로서 지난해 내수 전체에서 슬래그시멘트의 출

하구성비가 8.1%이던 것이 금년 11월까지 10.3%로 증가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고」 등 고로슬래그시멘트를 공공기관이 의무구매·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시멘트는 계절과 일기에 따라 소비가 변화되는 주요 건설자재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는 달리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온의 고저, 또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온과 일기가 건설공사에 적당한 봄과 가을이 성수기이며 폭염과 장마의 여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은 이른바 시멘트수요의 비수기가 된다.

<표-3> 1999년 시멘트 수급 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 / 4 분 기	7,337 (82.8)	741	8,078	8,182 (88.6)	15	8,197	1,674
2 / 4 분 기	13,535 (107.3)	1,030	14,565	14,493 (109.5)	10	14,503	1,616
상 반 기	20,872 (97.2)	1,771	22,643	22,675 (100.9)	25	22,700	
3 / 4 분 기	10,875 (96.0)	1,039	11,914	12,105 (106.0)	61	12,166	1,868
4 / 4 분 기	13,353 (113.2)	867	14,220	13,620 (111.7)	55	13,675	1,323
하 반 기	24,228 (104.7)	1,906	26,135	25,725 (108.9)	116	25,841	
합 계	45,100 (101.1)	3,677	48,777	48,400 (105.0)	141	48,541	

※ 주 : 12월은 추정치, 크렁카 수출 1,372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표-4〉 최근 10년간('90년~'99년) 시멘트 내수 계절지수 및 출하비

구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7.9	60.8	105.4	74.7	114.1	114.0	112.0	113.4	94.0	100.3	99.9	104.3	101.5	117.2	113.9	100.4	110.5	100.6
출하비	4.8	5.1	8.8	18.7	9.5	9.5	9.3	28.3	47.0	8.4	8.3	8.7	25.4	9.8	9.5	8.3	27.6	53.0

그러나 최근 들어서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 머물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7월과 8월 및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 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

'99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는 1/4분기 16.3%, 2/4분기 30.0%, 3/4분기 24.1%, 4/4분기 29.6%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6.3%, 하반기 53.7%로 각각 20,872천톤, 24,228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3,356천톤 더 많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하반기 구성비인 47.0%, 53.0%보다 하반기가 0.7% 늘어난 형태로 1/4분기의 내수부진이 반영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4〉)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내수출하를 수요부문별로 보면 10월까지 민수 95.6%, 관수 4.4%로 각각 34,673천톤, 1,607천톤으로 '98년의 민수 96.5%, 관수 3.5%와 비교하면 민수가 0.9% 포인트 감소하고 관수는 증가하였다.

'90년대 들어서 매년 1% 포인트 가까이 증가를 보이다가 IMF로 내수가 줄어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민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금년의 건설수주 실적에서 공공부문이 37.0% 감소하고 민간이 47.3% 증가한 것과 건설계약 추이에서 민간부문의 증가세에 반해 공공부문이 감소한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관수가 증가를 보이는 것은 관수실적으로 집계된 영종도 신공항 현장으로의 시멘트 출하가 '97년 28천톤에서 '98년에는 462천톤으로 급증하고 다시 금년 10월까지 666천톤(관수 전체의 41.4%)을 출하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한편 품종별 출하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하던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금년에는 전년수준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의 경우 벌크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1,696천톤으로 87.4%를 차지하여 '97년의 86.4%에 비하여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98년의 87.5% 보다는 0.1% 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98년 전체의 벌크화율과 비교했을 경우이고 '98년 1~10월의 벌크화율 87.3%와 비교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9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벌크화의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생 산

금년의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은 각각 43,900천톤, 48,4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크링카가 3.9% 증가하고 시멘트도 5.0%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크링카의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만 8,163천톤으로 8.9% 감소, 2/4분기 13,101천톤으로 8.4% 증가, 3/4분기 11,292천톤으로 11.7% 증가, 4/4분기 11,343천톤으로 2.3% 증가할 것으로 보여 1/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70.9%에 그칠 것으로 보여 '96년 92.2%, '97년 94.4%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98년의 69.4% 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97년 11월과 '98년 4월에 각각 완공된 RH시멘트(舊 한라시멘트)와 성신양회의 키른으로 생산능력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데 비하여 수요는 대폭 감소하여 연중 동절기 수준의 보수와 조업단축이 '98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었다.

지난해 키른별 유휴일수는 총 5,854일간으로 월평균 488일이었던데 반해 금년은 11월까지 5,549일간으로 월평균 유휴일수는 504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금년중 특기사항으로는 '97년 12월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가 생산을 중단했던 舊 흥성산업 삼척공장을 고려시멘트와 한국시멘트에서 임대하여 몇 개월간의 보수를 거쳐 8월에 화입을 함으로써 9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하겠다.

시멘트 또한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과 비교할 때 1/4분기 11.4% 감소이후 2/4분기 9.5% 증가, 3/4분기 6.0% 증가, 4/4분기 11.7% 증가하는 등 크링카와 마찬가지로 1/4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11월까지의 시멘트생산을 업체별로 보면 동양 9.5%, 쌍용 8.0%, 한일 -3.2%, 현대 -4.7%, 아세아 -0.8%, 성신 9.0%, RH -1.6%, 고려 19.5%, 한국 31.4%, 대한 26.9% 증가하였다. 동양과

쌍용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수출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성신은 증설, 그리고 고려, 한국, 대한은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내수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 수출입

시멘트는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제품의 특성상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수출입은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로 근접 국가간에서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내수부진을 타개키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 업체에서는 시장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바 그 결실을 맺고 있어 전년대비 7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주력시장이었던 동남아시아의 경우 시설은 급증한 반면 주변국들의 경제위기로 공급과잉이 만연되어 수출가격 덩핑이 횡행, 시장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기존 일본, 대만으로의 수출 이외에도 미국, 이집트, 스페인 등 원거리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5>)

'99년 총 수출실적은 5,049천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5,000천톤의 수출은 과거 우리 시멘트업체가 '70년대 초반부터 연간 1,000천톤을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이래 '80년대초 오일쇼크 여파로 국내수요 침체시 수출을 대폭 늘려 연간 5,000천톤의 수출로 내수부진을 타개하고자 노력한 지 근 20여년만의 일이라고 하겠다.

<표-5> 주요 국별 수출현황

(단위: 천톤)

구 분	미 국	일 본	이집트	스페인	포르투갈	대 만
1998	221	581	387	274	123	82
'99.1~11	1,600	823	659	420	291	246



〈표-6〉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천톤)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p)
크링카		93		4	488
시멘트	2,082	3,605	2,989	178	141
계	2,082	3,698	2,989	182	629

※ 주: (p)는 예상치.

품종별로 살펴보면 크링카가 1,372천톤으로 전년보다 13.4% 감소하였으나 시멘트는 3,677천톤으로 전년대비 196.5%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시멘트의 비중이 '92년까지 매년 우위를 점하다가 '93년부터 크링카의 비중이 시멘트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크링카 우위의 수출이 '96년까지 이루어지다가 '97년부터 시멘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금년들어서는 다시 전체 수출에서의 시멘트 비중이 72.8%로 전년의 43.9%보다 28.9% 증가하여 시멘트 우위의 수출구조로 시장이 변화되었다.

이는 크링카 주수입국인 동남아시아가 절대물량 과잉으로 가격덤핑이 횡행하여 붕괴, 주 수출대상국이 동남아국가들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국들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수입국에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시멘트 완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링카수출을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1,722천톤, 쌍용 2,502천톤, 한일 8천톤, 성신 109천톤, RH 708천톤으로 연안사인 동양, 쌍용, RH는 각각 107.5%, 77.6%, 61.6%의 증가를 보였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이 109천톤을 수출하여 전년의

126천톤에 비해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수출은 포장시멘트보다는 선적과 하역이 기계장치에 의해 이뤄지고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시멘트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포장시멘트는 14천톤만이 수출되었을 뿐 나머지는 벌크시멘트로 수출되었다.

한편, 국내 공급부족시 수급안정을 위해 들여오던 시멘트 수입은 극심한 내수의 침체로 한일·대우시멘트(주)가 중국에서 들여온 141천톤이 유일하며, 크링카 생산시설이 없는 한국과 대만에서 '96년에 이어 '98년말부터 크링카 수입을 재개하여 금년에는 한국이 대만에서 65천톤, 대만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423천톤을 수입하여 '96년의 93천톤을 크게 상회한 488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6〉)

라. 재 고

대규모 장치산업인 시멘트산업 생산능력은 일정한 반면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수요의 수준에 따라 재고상태가 변화된다. 따라서 항상 적정재고를 보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년의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630천톤으로 '99년 공급이 48,541천톤(수입 141천톤 포함), 수요가 48,777천톤(수출 3,677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323천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능력을 크게 밀도는 수요로 인해 필요량만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작년과 같이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쳐 4,000천톤의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재고관리에 애로를 겪는 일은 없었으나 연중 동절기 수준의 조업단축과 함께 생산시설에 대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포장시멘트를 취급하는 소비지 역두 및 하치장 재고를 살펴보면 11월말 기준 소비지 재고는 중

양 22천톤, 지방 24천톤을 합쳐 46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5.9% 감소하였다.

금년은 1~11월까지 중앙과 지방의 구분없이 매월 전년 30~50% 수준만의 재고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전년동월대비 감소원인은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포장시멘트 역시 비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재고 및 물류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로의 시멘트 이송을 줄였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 수 송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수반된 시멘트생산 및 내수의 부진이 올해도 이어져 금년 10월까지의 수송실적은 전년동기간의 38,732천톤보다 겨우 4.7% 증가한 40,553천톤을 운반하는데 그쳤다.

이는 건설경기 호조로 성장세가 계속되던 '97년에 50,013천톤을 운반했던 것과 비교하면 18.9%나 감소한 실적으로 내수부진으로 인한 시멘트 수송의 위

축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의 수송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통한 수송분담비가 증가해 전체 수송에서 차지하는 해송의 비율이 39.0%에 달하는 반면 '97년까지 수송분담비가 가장 컸던 육송은 더욱 감소해 3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업체가 생산공장의 가동율 제고와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로를 해외로 돌려 전년보다 시멘트 및 크링카의 수출을 2배 가까이 늘린 것과 상대적으로 물류비 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대량·일괄 수송의 잇점과 함께 화차회송료 면제 및 '97년 이후 요금동결로 단위당 운송비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철도를 육송보다 선호한 것을 들 수 있겠다.

한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수송수단 및 유통기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사유화차 수량 감소 및 유통기지의 축소운영 장기화에 따른 제반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

❀ 시사 용어 해설 ❀

▶ 전자화폐

최근 전자화폐 시범서비스가 늘고 있다. 마스타카드에서 몬덱스를 선보였는가 하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은 K-Cash(Korea-Cash)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전자화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화나 지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종이나 금속이 아닌 디지털 정보로 화폐 가치를 표현하게 된다. 전자화폐 겉모양은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플라스틱 카드에 반도체칩(IC)이 부착돼 있다. 고객이 은행에 가서 전자화폐를 신청하면 은행은 최대한도가 20만원인 전자화폐를 발급해 준다. 고객은 식당, 편의점,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전자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이때 잔돈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또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에서 전산망을 통해 은행계좌의 잔액이나 거래정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속도도 훨씬 빠르다. 전자화폐는 뇌물이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권과 달리 실명으로 발급되는데 한 은행에서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